

전체 주제: 하나님의 선한 기쁨

메시지 2, 3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

성경: 겔 1:22, 26-28, 고후 5:14-15, 롬 14:7-9, 골 2:19, 아 1:1-4, 고후 11:2-3

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A.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보좌를 위에 지닌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 겔 1:22, 26-28.
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이 있는지는 우리의 양심에 달려 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 롬 9:1, 고후 1:12.
 2.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 서로 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을 것이며,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질 것이다 — 행 24:16, 딤후 1:5, 19, 3:9, 딤후 1:3, 비교 마 5:8, 잠 22:11, 딤후 2:22.
- B.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 사 22:23, 히 4:16, 롬 5:21, 계 22:1.
1.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얻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위치를 얻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단 4:17, 25-26, 5:18-31, 사 6:1-8.
 2.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높고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맑은 하늘 위의 보좌를 갖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보좌의 모양’은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청옥은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하늘에 속한 색깔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가 있는 하늘에 속한 상황과 분위기와 상태를 가리킨다 — 출 24:10.
- D.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 창 1:26, 계 11:15, 3:21, 22:3-5, 롬 5:17, 21.

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A. 우리는 다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 고후 5:9, 14-15.
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에서처럼 우리를 강하게 제한하고,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강권되었다 — 고후 5:14-15.
 2.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 고후 5:9, 14-15, 골 1:10, 히 11:5-6.
 3.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으며, 그분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바울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삶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 B.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롬 14:8-9.
 1.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사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주님이시자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 영, 곧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 온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롬 14:8),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높이면서,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일, 곧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위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이다 — 고전 6:19-20, 15:58, 16:10, 엡 4:11-12.
- C.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고후 4:5)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주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노예가 되어야 한다(벧전 5:3, 마 20:26-27, 23:10-11).

I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되면, 천사들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으로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된다.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자 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며,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한다 — 엡 1:10, 요 1:4, 계 21:23-25, 엡 5:8-9.
- B.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붙드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권위로 취할 뿐 아니라, 그분께 친밀하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의 풍성과 생명 공급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그분에게서 나온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그 결과 온몸이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 골 2:19, 엡 4:15-16.
- C. 현재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삼일 하나님의 사중 능력이신, 초월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고전 1:24). 정상적이고 진실하고 합당하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이러한 큰 사중 능력, 곧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복종시키는 능력과 머리가 되시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엡 1:19-23).
 1. ‘교회에게’(엡 1:22)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성한 능력이 한 번 만에 영원히 우리 안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있는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하심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옮겨 붓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견고히 세우며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D.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 곧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 엡 3:16-17, 1:19-23.

- E.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이 사중 능력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엡 3:20-21.

IV.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A. 아가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함을 묘사한다 — 아 1:4상.
1.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했던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하며(대하 20:7, 사 41:8, 약 2:23, 창 18:1-33), 하나님의 권익을 위했던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출 33:11).
 2.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찾았던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한다 — 시 27:4, 8, 80:3, 7, 14-19.
 3. 우리는 그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던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 행 10:38 하, 요 8:29, 16:32.
 4.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본을 따라야 한다 — 요 21:15-19, 막 16:7.
 5.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았던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 고후 2:10, 5:9, 14, 20.
- B. 아가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다정해야 함을 묘사한다 — 아 1:1-2.
1.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 롬 8:15-16, 갈 4:24-26, 사 66:12-13.
 2.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마 9:15, 고후 11:2-3), 우리의 형님이시다(요 20:17, 롬 8:29).
 3.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마 11:19, 요 15:12-17), 우리의 조연자이시다(사 9:6).
 4.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요일 2:1), 우리의 보혜사이시며(요 14:16, 16:7, 13), 우리의 목자이시다(시 23:1, 뵤전 2:25).
- C. 아가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내밀해야 함을 묘사한다 — 아 1:3-4.
1. 우리는 비밀하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내밀하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 드림으로 주님의 빛 비춤과 주입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다 — 마 6:6, 출 33:11, 고후 3:16-18, 사 60:1, 5상, 마 14:22-23, 막 1:35, 눅 5:16, 6:12, 9:28.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신처와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충족함의 비결로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시 90:1, 91:1, 31:20, 18:1-5, 빌 4:7-13.
 3. 우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에 관해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고려하고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 비교 수 9:14.
 4. 이러한 방면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약해질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마주친 일들과 관련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조언을 구하며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고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달콤한 생활이다 — 고후 12:9-10.
 5.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모든 일에서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모든 일에서 또 다른 분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 빌 4:5-7, 잠 3:5-6, 고후 1:8-9.

D. 아가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함을 묘사한다 — 아 1:4하.

1.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 곧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내실이다 — 고전 15:45하, 롬 8:16, 고전 6:17, 딤후 4:22, 계 17:14, 19:16.
2.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3.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존재이든(롬 2:29, 8:5-6, 9), 무엇을 소유하든(10, 16절), 어떤 일을 하든(1:9, 7:6, 8:4, 13, 12:11)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4. 아버지는 참된 경배자들, 곧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생수를 마심으로써 영 하나님을 접촉하려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 요 4:23-24, 10, 14, 7:37-38, 사 12:1-6.
5.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두 번째 오실 때의 아들 — 딤후 1:16-18)의 공활을 기다림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 유 19-21.

V.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마 16:18, 엡 4:11-12, 16, 계 19:7, 21:2.